

서로 믿고 화합해야 생활공동체



노사협력

노사관계에 다시 먹구름이 일기 시작했다. IMF 피고를 하고버 넘긴 시점에서 노사의 대립은 국가 신인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원만한 타협에 이르기까지는 신너머 신인 것이 현실이다. 한국노총과 인노총이 올해 임금 상승을 5.5%와 7.5%로 내세운 반면, 재계는 동결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27 일에는 서울 중앙공원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4천여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국민은 노사와 정부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 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등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아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 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 고용인은 고용주를 위하여 다섯 가지에 힘써야 하나니라.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 그가 부르지 않도록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하라. 주인의 물건을 아끼고 버리거나 도둑맞지 않도록 하고, 주인이 출입할 때 함으로써 서로 대하며, 주인의 착한 점을 말 할지언정 나쁜 점을 말하지 않 도록 하라. (시가라할묵방어경)

■ 고용주는 고용인을 대하되 다섯 가지 일에 힘써 존경해 부 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힘에 알맞게 부리며,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해야 하며, 때에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 때때로 휴가를 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 주도록 하라. (선생자경)

■ 주인은 노비나 종들을 다섯 가지로 대우해라. 마땅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도록 하라. 병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의사를 불러 치료해 주도록 하라. 함부로 때리지 마라. 노비의 사유 재 물을 빼앗지 마라. 물건을 나누 어 주되 공평하게 하라. (시가라할묵방어경)

■ 끝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면 다들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 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 모든 증생들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따르니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한가지이나 사업을 이룸에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별역잡아할경)

■ 보살은 길을 가면서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매우 더울 때와 비가 오는 때에 나무 그늘이나 집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앉으라고 양보하며, 우물이나 샘물이 있거나 타인의 물 가진 것을 보았을 경우엔 남에게 먼저 마시라고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보살내계경)

■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강단에 모이게 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일곱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라. 둘째 상하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고 뜻을 어기지 마라. 셋째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마라. 넷째 스승을 받들어 섬겨라. 다섯째 마음을 닦되 효도와 공경을 우선으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 하고 자기를 뒤로 하며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마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 (장아할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장을 일으키려 한대 같이 싸우지 마라. 분장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 너를 맞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너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정인연경)

열린마당

문화부 증무실 축소

정부의 종교행정을 담당하는 문화관 광부 증무실이 축소 대상에 올랐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급 공무원이 실무 책임을 담당하는 증무실을 4급 수준인 증무과로 격하한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 종교계와 해당 부처의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교계도 증무실의 중요성을 간과한 발상이라며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교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원택 <조계종 증무부장>

문화관광부의 증무실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종교계와 정부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이기 때문이다. 증무실은 종교관련 정책의 제일선 창구이기 때문에 종교인 혹은 종교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국내외 종교활동에 대한 조정과 협력자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종교인구 증가 현행대로 존치"

그런 기능은 다양한 종교가 존립하는 우리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갈등 해소의 중재자가 되는 표적적인 행정 말고도 이 시대의 종교문화 형성에 적잖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증무실의 축소 개편은 이 같은 역할

의 중요성보다는 구조조정이라는 '속 제풀기' 차원에서만 검토된 듯한 인상이다. 종교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증가와 정서를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하고 증무실은 현행대로 존치돼야 한다.

자월 <증단협의회 사무처장>

종교간의 화합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종교관련 업무창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 철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증무행정은 국민의 절반을 훨씬 넘는 종교인들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종교편향 심각 오히려 격상을"

오히려 증무기관을 격상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종교가 국민 정신문화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한다면 증무기관을 생각하는 정부의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아쉬운 관에 기구를 축소시켰다는 것은 늘어나는 종교관련 행정을 '나

물라라'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활과 종교편향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올바른 종교정책의 정책 부재 때문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왕 개편설까지 나온 증무실은 이번 기회에 그 역할과 기여도를 새롭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안동일 <재가불자연합 대표·변호사>

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의 증무실을 축소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증무실은 각 종교계 행정을 다루는 부서이다. 그런만큼 각 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런만큼 종교계가 말고



"사회복지 실현 종교역할 크다"

있는 사회 분담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예가 인간생활을 차원높게 지켜 주는 사회복지 실현 등의 사업은 정부가 대신하여 종교계가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종교계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비롯하여 종교행정서비스가 줄어드는 증무실 축소

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에게 미치는 종교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21세기는 종교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만큼 미래사회 종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 증무실 개편안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윤원철 <서울대교수·종교학파>

민족문화의 꽃인 종교를 관장하는 증무실을 증무과로 3단계나 격하시키려는 것은 문화에 대한 근시안적인 이해에 기인하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있게 한 것은 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개신교 등 주요 종교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문화정책 포기 근시안적 사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밀레니엄 문화도 이들 종교가 선도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의 정수는 종교문화로 꽃을 피웠다. 동시에 문화발전의 거대한 원동력은 언제나 종교라는 근원적인 원천

에서 발흥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얼마 앞되는 경성비를 절약하기 위해 가장 전망이 밝은 21세기 신문화 발전의 인프라를 도모시키는 어리석음을 국민의정부가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김용표 <동국대교수·불교학파>

미래학자들은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21세기에 이르러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증무실이 약화되기보다는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단순히 증무실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게 아니다. 증무실에서 근무하는 각 종교 담당관들의 전문성 즉, 종



"관료주의 발상 증무행정 퇴보"

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증무실 근무자의 한국의 여러 종교에 대한 몰 이해도 지적하고 싶다. 또 종교관련 행정을 담당할 국가의 유일한 기관인 만큼 관료적 태도를 버리고 종교서비스 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할 때이다.

증무실 축소 방안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증무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질을 향상해야 하고 국가의 성숙된 종교정책도 요구된다.

지난 1일은 민속명절인 정월 대보름, 이때면 불교계는 전통적으로 대대적인 방생법회를 연다. 방생의식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보살행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이날 경기도 평택의 한 아담한 저수지. 방생 법회에 참여 한 50여명의 불자들이 자라, 미꾸라지, 붕어 등을 사와 저수지에 놓아 보냈지만 웬지 표정이 밝지 않았다. 물고기를 놓아 주었잖아 다시 잡히거나, 더러운 물 때문에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힘없이 등그라미를 그리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괜히 돈 주고 산 물고기만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놓아 준 것이



김재경 <취재1부 기자>

아닌가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앞선 2월 25일과 28일, 전북불교회관과 영남불교대학이 거행한 방생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은 하나같이 부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 불교회관 신도들은 사후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에 서약

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어류나 조류 등 대상물에 삼귀의와 오계를 주는 수계식과 보리심을 발하게 하는 법문과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이 함께 행해진다. 따라서 '불자여, 자비심으로 방생업(放生業)을 행하라. 그들이 지금은 어류이지만 모두 전생의 너의 부모

이니라' (범망경)고 한 경전의 본뜻을 깊이 깨우쳐 불행하는 환경친화적인 방생은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는 방편이 아닐 수 없다.

버스를 대절해 먼 곳의 방생지를 찾기에 앞서 가까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인간의 정이 흐르는 '사람 방생'을 실천해 보는 어떨지.

(jgkim@buddhapia.com)

경전의 본뜻을 깊이 깨우쳐 불행하는 환경친화적인 방생은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는 방편이 아닐 수 없다.

버스를 대절해 먼 곳의 방생지를 찾기에 앞서 가까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인간의 정이 흐르는 '사람 방생'을 실천해 보는 어떨지.

(jgkim@buddhapia.com)

경전의 본뜻을 깊이 깨우쳐 불행하는 환경친화적인 방생은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는 방편이 아닐 수 없다.

버스를 대절해 먼 곳의 방생지를 찾기에 앞서 가까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인간의 정이 흐르는 '사람 방생'을 실천해 보는 어떨지.

(jg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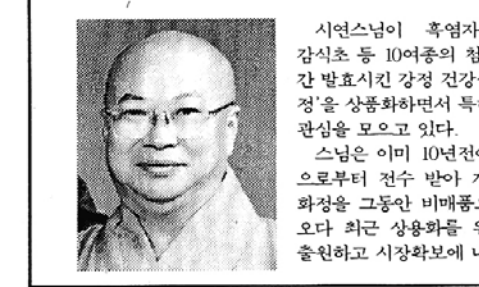
경전의 본뜻을 깊이 깨우쳐 불행하는 환경친화적인 방생은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는 방편이 아닐 수 없다.

버스를 대절해 먼 곳의 방생지를 찾기에 앞서 가까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인간의 정이 흐르는 '사람 방생'을 실천해 보는 어떨지.

(jgkim@buddhapia.com)

경전의 본뜻을 깊이 깨우쳐 불행하는 환경친화적인 방생은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는 방편이 아닐 수 없다.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든든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든든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원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반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서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르몬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서(전화 0443-646-7371) 주지 박범문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 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醇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몸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